

코오롱, 50주년 축하 쌀 불우이웃 기증

코오롱은 최근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개최한 창립 50주년 행사 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을 불우이웃을 위해 쓰기로 했다고 4월23일 발표했다.

쌀 기증에 나선 코오롱 한마음봉사단은 4월23일 구미지역의 자선단체인 참사랑시민연합에 20kg 쌀 120포를 기증했다.

매주 화·수·목요일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참사랑시민연합은 예상치 못한 코오롱의 쌀 기탁에 고마움을 나타냈다.

쌀 기탁 자리에는 배영호 사장이 직접 참여했다.

한마음봉사단은 참사랑시민연합을 비롯해 무료급식소와 사회복지단체 7곳에 모두 20kg 쌀 882포를 기증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7/04/24>